**중국국제서비스무역교역회 소개자료**

 2012년 중국 국무원의 승인을 거쳐 중화인민공화국 상무부와 베이징시 인민정부는 중국(베이징)국제서비스무역교역회(CIFTIS)를 공동으로 개최했고 당시 세계무역기구(WTO),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 경제협력개발조직(OECD)이 본 교역회를 후원했다. 2019년부터 중국(베이징)국제서비스무역교역회는 중국국제서비스무역교역회(약칭 ‘경교회’)로 명칭을 변경하고 매년 베이징에서 개최하기로 했다. 오늘날 중국 경제 성장이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면서 중국국제서비스무역교역회 역시 새로운 단계로 접어들었다. 이후 2020년에는 중국국제서비스무역교역회의 약칭은 ‘서비스무역회’로 변경하였다.

**Ⅰ.서비스무역회 개황**

지금까지 7차례 개최된 서비스무역회는 서비스 무역 분야에서 세계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종합적 전시회이자 중국 서비스 무역을 선도하는 전시회로써 중국국제수입박람회(CIIE), 중국수출입삼풍교역회(Canton Fair)와 함께 중국 3대 대외 개방 전시회 플랫폼으로 입지를 다졌다. 누적 전시 규모는 64.09만 ㎡로 총 1102회에 달하는 포럼·회의 행사를 개최했고 188개 국가 및 지역에서 1만여개의 기업이 참가한 가운데 140여만 명의 바이어가 방문했다. 이는 국제 서비스 무역의 교류와 협력을 강화하고 전세계 서비스 경제 발전을 추진하는 데 긍정적 역할을 하였다.

중국 정부는 매회 국가 지도자가 참석할 정도로 서비스무역회를 중시하고 있다. 2020년 시진핑 국가 주석이 서비스무역회 글로벌 서비스무역 서밋에서 3가지 협력 방안을 제안하며 개방적이고 포용적인 협력 환경을 공동 조성하고, 혁신을 이끄는 협력 에너지를 공동 활성화하고, 상호 윈윈의 협력 형세를 공동 창립하자는 뜻을 밝혔다. 또한 베이징의 국가 서비스업 개방확대종합시험구와 자우무역시험구 건설을 지원하는 두 가지 정책을 발표하며 중국의 확고한 대외개방 확대의 신념과 의지를 드러내며 세계경제의 빠른 회복 촉진 및 글로벌 서비스 무역 발전을 위해 새로운 동력을 불어넣었다. 2019년 시진핑 주석은 서비스무역회 개막 당시 축하 서신을 보냈다. 리커창(李克强) 총리, 한정(韓正) 부총리, 후춘화(胡春華) 부총리, 원자바오(溫家寶) 총리, 왕양(汪洋) 당시 부총리도 서비스무역회에 참석한 적 있다.

**Ⅱ. 2021년 중국국제서비스무역회 소개**

2021년 서비스무역회는 오는 9월 초 베이징 국가컨벤션센터와 서우강(首鋼) 단지에서 열리며 코로나 사태를 고려하여 온·오프라인 방식으로 진행된다. 서비스무역의 발전 포인트와 트렌드를 중심으로 통신·컴퓨터 및 정보 서비스, 금융 서비스, 문화·관광 서비스, 교육 서비스, 공급체인 및 비즈니스 서비스, 엔지니어링 컨설팅 및 건축 서비스, 건강 위생 서비스 등의 8개의 테마를 선보일 예정이다. 또한 글로벌 서비스무역 서밋, 포럼 및 컨퍼런스, 전시 디스플레이, 홍보 상담, 성과 발표, 부대 행사 등 6가지 행사가 진행되며 전시회 면적은 약 13만 m²으로 포럼과 컨퍼런스 및 상담이 100여 회가 진행된다. 또한 전시 기간 바이어들을 위한 비즈니스 답사, 투자 촉진, 문화 체험 등의 부대행사도 진행된다.

**글로벌 서비스 무역 서밋**에서는 관련국의 정계인사와 국제기구 책임자들을 초청, 온·오프라인 연설을 통해 정책과 경험을 교류하며 글로벌 서비스 무역의 번영과 세계 경제 회복을 추진한다. 포럼 및 컨퍼런스는 서밋포럼, 브랜드 심포지엄, 업계 회의를 포함하며 서비스 무역 및 투자협력, 각 프로젝트의 이슈와 트렌드를 심화하는 데 집중하고 산업 발전을 선도한다. **전시·디스플레이**는 종합전시회와 특별전시회로 나뉜다. 종합전시회는 국가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되며 국가별, 성구시(省区市), 홍콩, 마카오, 타이완 등 국가 및 지역 전용구역과 디지털 서비스 전용구역 등이 마련된다. 디지털 서비스 전용구역에서는 서비스 분야 내 디지털 기술의 최신 성과 및 최신 응용 현황을 보여준다. 특별전시회는 서우강 단지에서 개최되며 8개의 테마별로 기업전시회가 진행된다. 홍보·상담은 국가별 홍보 상담, 성구시 및 홍콩· 마카오·타이완 홍보 상담, 업계 홍보 상담 등 3가지 유형으로 진행된다. 이를 통해 서비스 분야의 외자유치와 중국기업 해외진출을 동시에 촉진시킨다. **성과 발표**는 발표홀을 마련해 진행되며 신상품 출시, 서비스 모범 사례 발표 등이 진행된다. **부대행사**는 전시 참가 업체에 자원 공유 플랫폼을 제공하고, 비즈니스 자원을 활용해 전시회 기간 동안 테마 행사, 비즈니스 협상, 살롱, 연회, 리셉션 등 다양한 활동을 진행한다.

2021년 서비스무역회는 계속해서 온·오프라인 방식으로 진행되며 참가업체는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온라인 등록, 부스 예약, 온라인 부스 (평면 부스 및 3D 부스 포함), 전시 생중계, 온라인 회의, 온라인 상담, 프로젝트 발표, 전자 계약 체결, 비즈니스 기회 추적 및 데이터 분석 등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해당 플랫폼을 통해 참가업체는 시간과 공간에 구애받지 않고 동영상, 그래픽, 생중계 등의 다양한 멀티미디어 방식을 통해 제품 및 서비스를 온라인으로 전시하고 언제 어디서나 온라인상의 고객과 실시간 통신, 영상통화, 온라인 미팅 등의 방식을 통해 소통할 수 있다. 또한 플랫폼이 제공하는 데이터 분석 서비스는 참가 업체들이 더 많은 비즈니스 기회를 발견하고 전자 계약 체결 기능을 활용해 더 많은 거래를 할 수 있도록 돕는다.

**III. 참가 신청 마감 일자**

오프라인 기업전시회: 7월 15일

온라인 전시회: 8월 15일